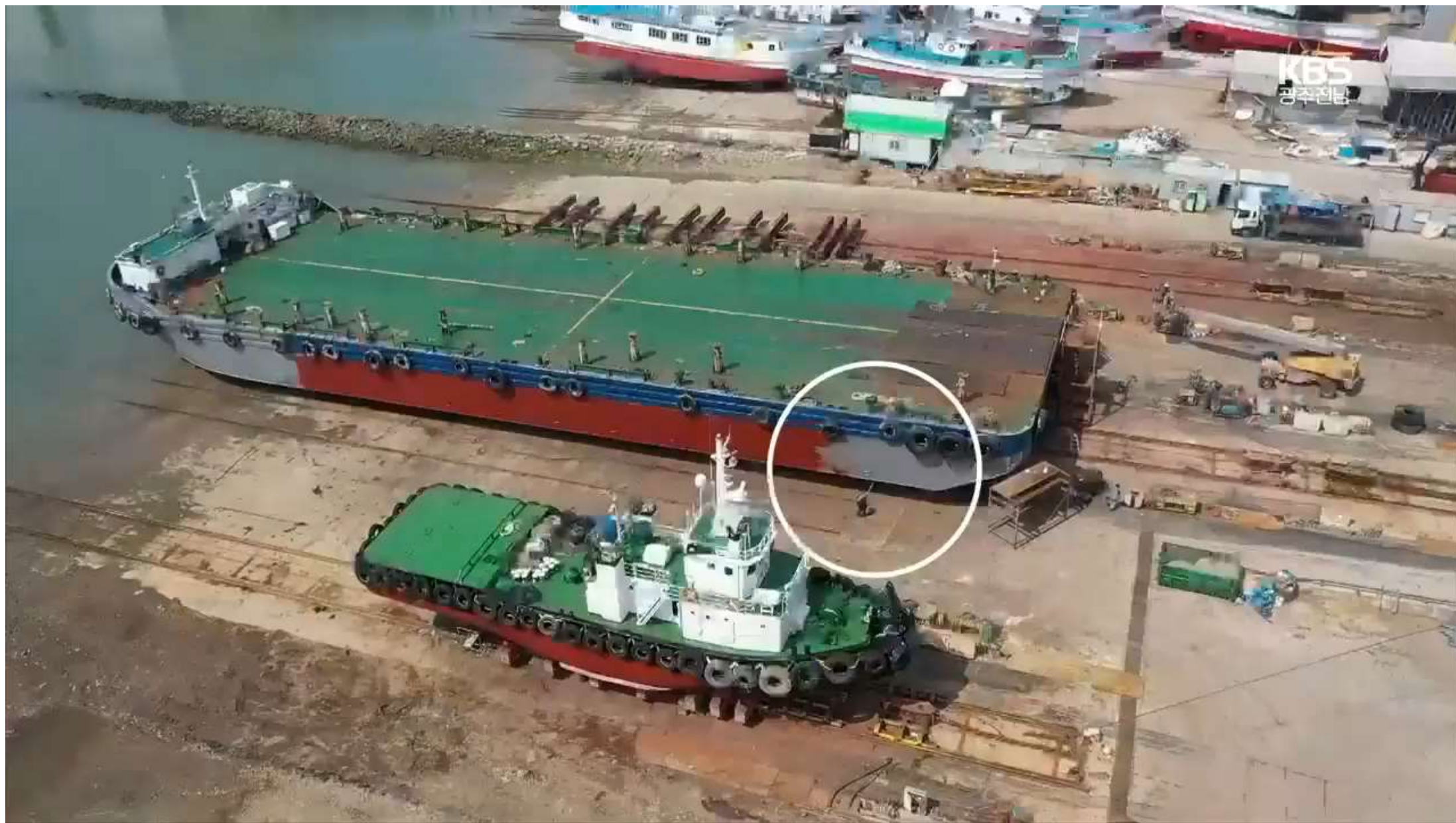


제379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최현주 시의원**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언론보도



전남권 도시대기측정망 자료(TMS)비교(산정농공단지)

기간	지역	PM-10 ($\mu\text{g}/\text{m}^3$)	PM-2.5 ($\mu\text{g}/\text{m}^3$)	SO ₂ (ppm)	NO ₂ (ppm)	CO (ppm)	O ₃ (ppm)
11.3. ~ 11.27.	이동측정차량	44	26	0.002	0.011	0.4	0.036
	인접측정소 (용당동)	42	16	0.002	0.014	0.5	0.034
	인접측정소 (부흥동)	38	17	0.002	0.015	0.5	0.024
	인접측정소 (대불)	45	27	0.002	0.012	0.4	0.028
	전남	34	18	0.003	0.012	0.4	0.029

- 아황산가스(SO₂)와 일산화탄소(CO)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가스상 및 입자상 물질이 전남 평균농도 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영암 대불측정소와 유사하게 높은 농도를 보임.
- 오존(O₃)농도는 가장 가까운 용당동 측정소와 비슷한 농도로 나타남.

전남권 도시대기측정망 자료(TMS)비교(삽진산업단지)

기간	지역	PM-10 ($\mu\text{g}/\text{m}^3$)	PM-2.5 ($\mu\text{g}/\text{m}^3$)	SO ₂ (ppm)	No ₂ (ppm)	CO (ppm)	O ₃ (ppm)
12.1 ~ 1225.	이동측정차량	47	31	0.001	0.013	0.4	0.028
	인접측정소 (용당동)	37	15	0.002	0.015	0.6	0.028
	인접측정소 (부흥동)	34	17	0.002	0.015	0.5	0.021
	인접측정소 (대불)	47	29	0.002	0.013	0.4	0.024
	전남	33	19	0.003	0.013	0.4	0.024

- 전남 평균농도와 비교하면 아황산가스(SO₂)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산화질소(NO₂)와 일산화탄소(CO)는 유사하게 나타남.
- 특히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영암 대불측정소와 유사하게 높은 농도를 보였고, 이는 산정농공단지 측정 결과와 유사함.

측정기간 중 시간대별 농도변화 (산정농공단지)

시간/항목	PM-10($\mu\text{g}/\text{m}^3$)	PM-25($\mu\text{g}/\text{m}^3$)	SO ₂ (ppm)	NO ₂ (ppm)	CO(ppm)	O ₃ (ppm)
1	46	26	0.002	0.01	0.4	0.035
2	43	25	0.001	0.01	0.4	0.033
3	38	23	0.001	0.01	0.4	0.031
4	38	22	0.001	0.006	0.4	0.032
5	39	22	0.002	0.005	0.4	0.032
6	38	23	0.001	0.01	0.4	0.029
7	41	24	0.001	0.014	0.4	0.024
8	43	24	0.002	0.018	0.4	0.02
9	46	26	0.002	0.02	0.5	0.02
10	49	29	0.002	0.017	0.4	0.026
11	49	30	0.002	0.013	0.4	0.033
12	47	30	0.002	0.01	0.4	0.039
13	47	28	0.002	0.007	0.4	0.045
14	44	26	0.002	0.007	0.4	0.048
15	47	26	0.002	0.007	0.4	0.049
16	46	26	0.002	0.006	0.4	0.051
17	48	26	0.002	0.007	0.4	0.05
18	49	27	0.002	0.007	0.4	0.048
19	46	26	0.002	0.009	0.4	0.045
20	47	26	0.001	0.011	0.4	0.041
21	47	27	0.002	0.011	0.4	0.039
22	48	28	0.001	0.012	0.4	0.036
23	48	28	0.002	0.014	0.5	0.032
24	46	26	0.002	0.012	0.5	0.033
최대	48	30	0.002	0.02	0.5	0.05
최소	38	22	0.001	0.006	0.3	0.02
평균	44	26	0.002	0.011	0.4	0.036

측정기간 중 시간대별 농도변화 (삽진산업단지)

시간/항목	PM-10($\mu\text{g}/\text{m}^3$)	PM-25($\mu\text{g}/\text{m}^3$)	SO ₂ (ppm)	NO ₂ (ppm)	CO(ppm)	O ₃ (ppm)
1	39	24	0.001	0.013	0.5	0.025
2	43	29	0.001	0.01	0.5	0.026
3	43	27	0.001	0.01	0.4	0.025
4	42	27	0.001	0.009	0.4	0.025
5	39	26	0.001	0.01	0.4	0.023
6	40	26	0.001	0.013	0.4	0.02
7	38	26	0.001	0.018	0.5	0.017
8	39	26	0.002	0.024	0.5	0.014
9	47	29	0.002	0.023	0.6	0.014
10	55	35	0.002	0.02	0.5	0.018
11	58	36	0.002	0.015	0.4	0.024
12	55	33	0.002	0.013	0.4	0.029
13	56	31	0.001	0.009	0.4	0.036
14	49	29	0.001	0.01	0.4	0.037
15	55	31	0.001	0.01	0.4	0.039
16	56	30	0.001	0.01	0.4	0.039
17	54	30	0.001	0.009	0.4	0.039
18	56	32	0.001	0.009	0.4	0.038
19	51	29	0.001	0.011	0.4	0.034
20	44	26	0.001	0.014	0.4	0.031
21	43	27	0.001	0.014	0.4	0.029
22	43	27	0.001	0.014	0.4	0.027
23	43	28	0.001	0.015	0.5	0.026
24	45	28	0.001	0.015	0.5	0.025
최대	58	38	0.002	0.024	0.6	0.039
최소	38	25	0.001	0.009	0.4	0.014
평균	47	31	0.001	0.013	0.4	0.028

연도별 대기중금속 측정망 확충계획

구분	총계	년도						
		기설치 (~'20)	소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85	70	15	5	3	3	2	2
서울	5	5						
부산	5	5						
대구	5	4	1		달성군			
인천	5	5						
광주	6	6						
대전	4	4						
울산	7	5	2	북구 울주군				
세종	1	1						
경기	8	7	1					평택시
강원	6	6						
충북	3	2	1		증평군			
충남	5	5						
전북	3	1	2		군산시			익산시
전남	9	4	5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1)			여수시(2)	
경북	7	6	1			김천시		
경남	6	4	2			통영시 양산시		
제주								

언론보도

목포 산단 2곳, 20년간 환경조사 한번 안 했다

노동계·환경단체·조선대병원 삼진산단·산정농공단지 주변 실태조사
주민 80% 이상 “씻가루·페인트 냄새·소음 심하다”
정부 차원 모니터링·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목포 삼진산업단지와 산정농공단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지역 산단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환경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 오염에 노출이 심한 주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5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전남노동권익센터·목포환경운동연합·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공동으로 실시한 ‘목포시 삼진산업단지·산정농공단지 주변환경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포에는 지난 1991년 산정농공단지가 조성됐고, 이 단지 옆에 2000년에 삼진산단이 준공됐다.

이 두 단지에는 목포항 내 산재돼 있는 조선소를 비롯해 선박정비수리, 기계조립 금속업 등의 조선 관련 사업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현재 총 14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목포지역 환경단체와 지역 노동계는 삼진산단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정비도 없이 방치된 데다 여기에 산단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FRP 정비수리업, 조선소 정비 등의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여 년전부터 씻가루, 페인트 냄새,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목포환경운동연합·전남노동권익센터는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함께 지난 6월 1일~30일까지 삼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 주변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두 산단의 노동자와 인근 주민 등 153명(남자 133명·85.6%, 여자 20명·14.4%)을 상대로 실시됐다.

실태조사결과 공단 주변환경 상태에 대해 31.4%가 ‘매우 심각하다’, 43.8%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하는 등 10명 중 8명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공단내 노동자의 경우는 72.3%, 공단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71.4%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산단 주변 환경문제로는 먼지(분진)가 매우심하다(44.4%)·심하다(39.3%)로 답해 84.3%가 먼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씻가루가 많다(76.5%), 페인트 냄새가 심하다(73.9%), 소음이 심하다(73.9%)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조사자의 대부분(85.6%)이 환경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진산업·산정농공단지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주변환경 모니터링, 산단주변 환경문제 개선, 산업안전보건 노동환경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결과발표를 한 단체들은 “목포 산단 주변환경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주변 환경 모니터링 감시단을 구성하고, 산업안전 보건실태 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두 산단 지역 주민 및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목포시,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산단환경개선 및 작업환경, 건강권에 대한 개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랏빛 산책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천지인 문화소통길에서 주민들이 꽃망울을 터트린 맥문동을 구경하며 산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스트, 갑상선암 악화 유전자 발견

中 쓰촨대학병원 공동연구... 조기진단·치료 등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과 중국 쓰촨대학병원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발병 후 진행 속도가 빠르고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희귀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의 조기진단 및 새로운 치료법이 제시됐다.

갑상선암의 진행과정을 추적했으며, 그 결과 ‘CREB3L1’이 암전이와 암세포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미분화갑상선암을 유도하는 핵심인자인 것을 밝혀냈다.

을 거쳐 진행이 되는지, 핵심 조절 유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환자 조직에 대한 단일세포 분석을 통해 미분화 갑상선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의 암세포를 발견했으며, 이러한 암세포는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인 분화갑상선암의 암세포로부터 유래했음을 밝혀냈다. 이는 미분화 갑상선암과 분화 갑상선암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반박하는 연구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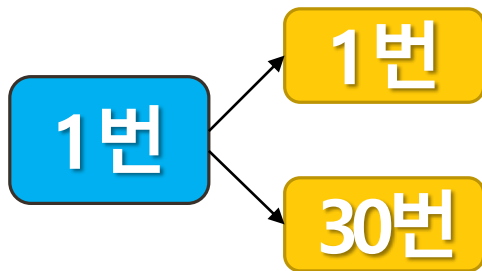
시내버스 현황과 이후 대책 관련

노선 효율화 및 배차시간 조정

※ 작년 공론화 위원회에서 나온 노선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교대제를 적용한 노선 효율화(안) 제시

- 1개 노선 분리, 3개 노선 조정, 3개 노선 폐지

노선 분리



통합 이전으로
분리

노선 통합 및 조정



노선 폐지



버스노선체계 개편

1단계 : 노선개편 관련 용역

-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는 수익노선
-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필요노선
- 폐지노선

2단계 : 노선조정 프로젝트

- 공론화 과정



목 포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목포 시내버스 정상운행 및 특단의 경영개선(안) 제출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태원여객·(주)유진운수 시내버스 운송회사의 가스비 미납 관련하여 '22.12.12.(월) 부터 시작된 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하여 교통약자 등 시민의 이동불편이 심각히 침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더 이상 시민의 교통주권과 이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인가된 운행계통을 준수 하여 모든 노선의 시내버스 배차 및 운행횟수를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4. 또한 회사에서는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2022.12.31.(토)까지 기한 엄수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 포 시

수신자 (주)태원여객 대표이사, (주)유진운수 대표이사



주무관 박두욱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교통행정과장 전결 2022. 12. 14.
협조자 윤병중

시행 교통행정과-97866 (2022. 12. 14.) 접수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061-270-8338

팩스번호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061-270-850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22. 제23조·제33조·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목포 관광개발공사 설립 관련

전라남도
22개 시군
재정자립도

연번	시군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1	목포시	17.34	53.61
2	여수시	29.35	60.46
3	순천시	17.77	57.95
4	나주시	16.81	57.82
5	광양시	25.35	57.05
6	담양군	10.73	58.06
7	곡성군	8.29	60.53
8	구례군	7.06	62.31
9	고흥군	6.33	57.99
10	보성군	7.02	58.83
11	화순군	13.9	62.33

연번	시군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12	장흥군	6.97	53.18
13	강진군	7.80	60.78
14	해남군	7.7	59.99
15	영암군	10.79	66.56
16	무안군	11.72	63.60
17	함평군	7.58	56.5
18	영광군	12.92	59.65
19	장성군	11.23	62.26
20	완도군	6.49	62.04
21	진도군	8.51	59.10
22	신안군	6.69	59.07

감사합니다.